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5월 12일 (제100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추억담 만들기

내가 아는 사업가가 있다. 그는 몇 년 전,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생했다. 그 당시에 그는 금식을 밥 먹듯 하며 고난을 힘겨워했지만 지금은 그때를 웃으면서 회상한다.

고난이 크면 추억담이 크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고생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고추보다 맵다는 시집살이를 겪고 곱간 열쇠를 거머쥔 이야기를 훗날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유다.

고난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이 다모작이기 때문이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모진 세월을 거치고 3모작을 했기에, 요셉도 노예로 살다가 3막의 인생에서 그의 형들을 만났기에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더욱 너그러울 수 있었다.

나 역시도 그렇다. 지난 34년,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라 표현했던 목회 여정을 지금은 웃으면서 간증한다. 1막이 핼박과 환난의 시기라면, 2막은 해외집회로 세계를 누비던 시절이고, 이제 3막을 위해 나는 다시 몸을 정비하고 있다.

내 인생 3막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는 것이다. 1막인 왕궁에서의 생활, 2막인 광야에서의 양치기 시절, 그리고 인생 3막, 나이 80에 출애굽 지도자가 된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더욱 깨닫는다. 또한 80의 나이에 거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갈렙, 정치가로서 1막을 마치고 70의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윈스턴 처칠, 고난의 1막을 지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이승만이나 벨슨 만델라...

누구나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지 않을 때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고,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담이 될 것이다.

“Never Give up in Life!”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약 5:10~11).

나는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을 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마태복음 7장 7~8절의 말씀은 실천하는 자가 임자다.

스케줄이 빽빽하신 총회장 목사님이 교구 기도처예배까지 가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노원교구 김명자 전도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에 계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처 이전예배를 인도해 주십사 강력하고 또 강력했다. 이에 목사님이 승낙하셨고, 마침내 지난 5월 3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노원교구 기도처 이전예배를 드렸다.

이 대충이란 균을 박멸하고 다른 교회보다, 다른 기도처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면 성도들이 바글바글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닭장을 짓는데 대충 지으니가 살팽이가 닭장 속으로 들어와 닭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섬세한 여자 직원들을 불러 촘촘히 망을 짜더니 닭이 안전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겁니다. 대충 하다가는 다 악한 것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전도사와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오늘 이전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더욱 성화된 나, 더욱 발전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지요.

또한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명에 부도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명에 부도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맡겨진 일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날에 반드시 계수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에 예절이



노원교구 기도처 이전예배(2019년 5월 3일)

목사님은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함께 하는 자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기도원에서 서울로 오면서 운전해 주는 총직 집사와 갈비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나는 주인을 불러 왜 이렇게 맛있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만큼 다른 갈비탕 집보다 갈비를 한 대 더 주고, 오래 부글부글 끓여서 갈비를 연하게 하는 것이 성공비결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사업이든, 목회든, 정치든, 개인이든 대충해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중, 요충, 십이지장충이 우리 건강을 갇아먹듯, 대충은 바로 우리 성공을 갇아먹는 기생충입니다. 노원교구가 배가하려면

망하는 줄 압니까? 왜 이혼하는 줄 압니까? 첫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입당할 때의 이 마음, 결혼할 때의 마음, 창업했을 때의 마음, 어느 분야에 입문할 때의 마음을 잃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전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자세, 이 열정이 변하지 않으면 노원교구는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함께 가는 자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울과 가룄 유다를 통해 변질된 자의 최후가 가히 어떠한지 또한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

라는 음식을 담아야 합니다. 명품은 포장도 맛있습니다. 저속한 말이나 상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행동도 천박스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원교구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아주 예절도 바르고 말도 상냥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기도처가 모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처가 발전할 때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발전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배가운동은 오늘 이 말씀이 실천될 때 가능하다. 부디 노원교구뿐 아니라 모든 지교회와 기도처가 이 말씀을 행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극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4~15)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집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돈, 돈, 돈, 1등, 일류대학, 출세만을 지향하고 있어 더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좋고 나쁜 아파트, 최신식 전자제품들, 완벽한 인테리어, 비싼 차...,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할 행복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길 원하지만 돈이 많아야 하고, 출세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삭막해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화목한 가정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6:4~9). 어린 아이들의 심령은 깨끗한 스펀지와 같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달팽이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누구나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힘든 것은 그것을 가꾸는 일입니다.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자식을 제대로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정말 자식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농사는 다른 것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풍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최초의 교육기관이요, 최고의 교육기관인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시127:3). 기업의 성패가 기업경영에 있듯 자식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곧은 거목이

나, 잡목이나, 아니면 뿔감이나 결정됩니다. 바르고, 참되고, 머리가 된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까?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무릎에 앉혀놓고 시편 말씀을 읽어주고,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어주세요. 콩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콩나물로 자라듯,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바르고 의롭게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며, 학식을 더하게 하며, 모략을 얻게 하므로 이보다 더 좋은 교육지침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역사 이래로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

통령이 된 후 “오늘의 나는 내 손에 성경을 쥐어준 어머니 덕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나이 9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링컨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며 ‘이 한 권의 책이 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것’이라고 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 손에 영어책을 들려주기 전에 성경을 쥐어주십시오. ABC를 외우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치면 당신의 자녀도 링컨처럼 만민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초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에는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13:24)고 했고,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응석까지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란 불법에 대하여, 잘못에 대한 응당한 징계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말

고,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잘잘못을 가려줌으로 죄악에 대해 알게 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 이것을 잡아줘야지 머리가 커지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분재도 어린 가지는 곡이 잘 잡히지만, 굵어지면 절대 마음대로 꺾이지 않듯 자녀교육도 동일합니다(잠127:4~5).

그 다음 가정의 윤리가 바로 서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엢6:1),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엢5:22),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엢5:25).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약속인

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엢6:2~3).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진대도 하나님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효도한 요한이 가장 장수했고, 이삭이 순직한 복을 받았습니

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엢6:2~3).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진대도 하나님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효도한 요한이 가장 장수했고, 이삭이 순직한 복을 받았습니

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엢6:2~3).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진대도 하나님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효도한 요한이 가장 장수했고, 이삭이 순직한 복을 받았습니

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엢6:2~3).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진대도 하나님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효도한 요한이 가장 장수했고, 이삭이 순직한 복을 받았습니

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합니다. 대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입니다. 억지로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넘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깐요.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이요 또한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해야 하는데 경영은 관리요, 관리란 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잘 경영하는 것은 가족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이는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점검하지 못해서 가족이 풍비박산 나면 출세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으로 가린다고 해도 오장육부가 썩으면 낮빛이 밝지 않은 것처럼 돈을 갈취로 굶었다고 해도, 남이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자식농사를 망치면 그 사람의 낮빛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집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말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피시다.

여러분, 가정의 성공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잘 때리고, 아무리 잘 달리고, 만루가 되었다고 해도 홈에 들어오지 않으면 승리와 무관하듯,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와 명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홈(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들어갈 가정이 없다면, 진정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교권(敎權)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다 같다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하여 1963년 5월 26일에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사은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날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3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사은행사를 제한하는 바람에 폐지되었다가 1982년부터 부활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사들 사이에서 ‘스승의 날’을 폐지하지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권이 형편없이 바닥에 추락한 마당에 스승의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교권보다 위에 있다 보니 사랑의 매가 폭력으로 치부되고, 공경의 표시로 마음을 담아 드리던 선물이 나 촌지가 뇌물로 취급되는 현실입니다. 학교나 군대와 같이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서 집단생활을 할 때는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인권을 주장하며 체벌이나 벌칙조항을 다 빼버리고 나니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귀하다면 강하게 길러야 하고,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

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아이의 역성을 들어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어른을 공경하는 법부터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迷惑するな(메이와쿠스루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대중식당에서 다른 식탁에 피해를 끼쳐도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를 혼이라도 내면 싸울 듯이 달려들면서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느냐?”며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아이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맙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 맡겼으면 선생님께 부모의 권한을 넘겨 드려야 합니다. 대를 이을 귀한 자식 일수록 회초리를 마다하지 않고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한 마당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나의 교육관은 어떤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스승을 스승으로 대접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마태의 외통수

‘외통수’란 피할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이른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한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많은 제자들은 본업인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마태는 어땠을까? 로마의 앞잡이 세리가 어디서 발붙일 수 있을까? 로마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되고 기술 없는 자가 어디로 돌아갈까? 외통수다. 주님이 그리 인도하셨다. 주님만 의지하는 길, 외길!

나도 주님이 던지신 외통수에 걸렸다. 물질을 애타게 간구하였으나 빈털터리가 되게 하였고, 명예와 자존심을 다 무너지게 하셨다. 나는 무소유를 원하지 않았으나 무소유의 삶 속에서 집착을 없애게 하셨다. 목회를 원치 않았으나 이 길을 걷게 하셨다.

되돌아갈 길 없는 외통수의 길! 마지막 남은 육체적 자긍심마저 말기 암으로,

대수술로 찢으시니 그마저도 버리라 이르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6:1).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하셨지만 내게는 처자식마저 떠나게 하셨다. 구태여 간구할 것도 없다. 오직 함께 하시기만을! ‘내 뜻대로 마음소서!’ 기도할 뿐. 내 소욕을 거슬러 인도하시는 분. 그 존재가 확실하니 무엇을 바랄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39:7).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진리의 학당 ::

영생하는 영혼과 양식 (창세기 2:16~17)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신이시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고유하게 지키실 생명이지만 한줄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 인간 또한 하나님의 영생을 공유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영적인 일에 대하여 흥미가 없고 애타지도 않는다. 정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들은 씨 맺는 식물을 먹게 하셨으니 너도 나도 육체를 가졌기에 식물을 먹고 산다. 그런데 곁으로는 건강하고 기운이 있어 보여도 영양공급의 조화가 깨져 있으면 육체는 위기에 직면한다.

여타 생물과 달리 인지를 영접할 인간에게는 영을 주셔서 영적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사람에게에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그러므로 육체가 식물을 섭취하듯 영을 위해서는 신령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죽음을 지고 사는 자들이야 당연히 심판받겠지만, 구원받은 당신의 영적상태는 어떠한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백체가 멀쩡해도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운 것처럼(마6:19~23), 온 세상

을 다 얻었다 해도 영을 위해 주신 신령한 기회를 상실하여 영적 결핍이 오면 망한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믿는 말씀을 교훈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라 한다. 조개껍질을 먹을 수 없지만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듯이, 성경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 세상 책들은 좋은 내용이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영생의 보고(寶庫)다. 생령이 된 우리는 그 생명을 취해야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요6:63). 육신은 누구를 막론하고 끝날 날이 온다. 아무리 윤택하고 수려해도 결국 죽는다. 그러나 영만은 영원히 산다. 이 같은 영의 실상을 모르면 훌륭히 봉사하던 자도 어느 날 떠나고 만다. 하나님 말씀의 결핍증이 그렇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취해야 영혼이 부유해진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대속함을 받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

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요6:53~57). 예수의 공로로 옛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현실에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영혼의 날을 예비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면 불순종하는 것도,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정욕과는 정반대인 말씀을 심령에 모시고 순종할 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된다(요8:31~32).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지에는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다. 왜 두 기능이 필요한가? 철든 자식이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알고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생을 부어주시지 않고 각인의 의식을 통해 수동적 의지로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심으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어떤 경로로 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심이다. 선악과의 계명은 사

람을 살리시려는 말씀이요 사랑이지만 순종할 때만 영생의 말씀이 효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수동(受動)하면 살고 그 사랑을 배타(排他)하면 망한다. 마귀가 인간 속에 쌓아놓은 지식과 이론과 망상의 성벽은 성령이 오셔야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후10:5). 저주의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리며 누가 그의 명예를 회복하겠는가? 누가 그를 죄인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변호하겠는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시다(요14:26/15:26). 성령은 망각된 예수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에 대한 보증으로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 겸손히 무릎 꿇어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정욕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갈5:19~26)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예수 이름과 영생할 영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증거의 직무를 다하자.

박덕규 목사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고등학교 국어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교실을 돌며 수업을 하시다 한 아이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책상에는 크고 흰 글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문장을 크게 읽고는 ‘기쁘시게’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선생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쓴 건데 왜 틀렸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는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국어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는 듯이 그 아이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문장을 보곤 불쾌한 듯 아이를 한참 쳐다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번 국어시간마다 따끔한 눈총을 받았어도 아이의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 어떤 학문보다 가장 권위 있는 것이라는 고집입니다. 혹 그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못하신다며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침노하라!’고 외치며 성경 그대로 가르치려 애쓰는 한 목자를 만났고, 그 목자의 크고 청청한 나무 그늘 아래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영

어를 배우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방해 없이 하나님과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을 이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금식을 여러 번 하며 하나님의 도움만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평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14:21)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상하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예배 중에 총회장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한번 더 말씀해주셨고,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행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정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에 있는 예쁜 집을, 전혀 생각 해본 적 없는 방법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읽기만 한다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알기 쉽게 잘 가르쳐주시는 총회장 목사님과 이시대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제 다시 저의 고등학교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졸업식을 앞두고 국어선생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를 쾌심한 제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가르쳐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며 씩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도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빙그레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 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7). **박영신 성도**

네 삶은 하나님 손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된다. 늘 평탄할 것 같았던 내 삶이 갑자기 곤두박질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굽이진 길을 해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다가도 그 길을 통과하면 다시 산들바람을 맞으며 가벼운 걸음을 할 때가 오기도 한다. 마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명언처럼 그 일이 지나가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여정을 알면서도 막상 힘든 일을 마주치게 되면, 먼저 걱정이 앞서고 불안감과 염려로 마음이 곧잘 동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염려함으로 내키를 한 자라도, 내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 긴장과 불안함은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한 순간마다 이 사실을 되된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마음속 긴장이 완화되며 어디서부터가 새 힘과 담대함이 솟아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든든함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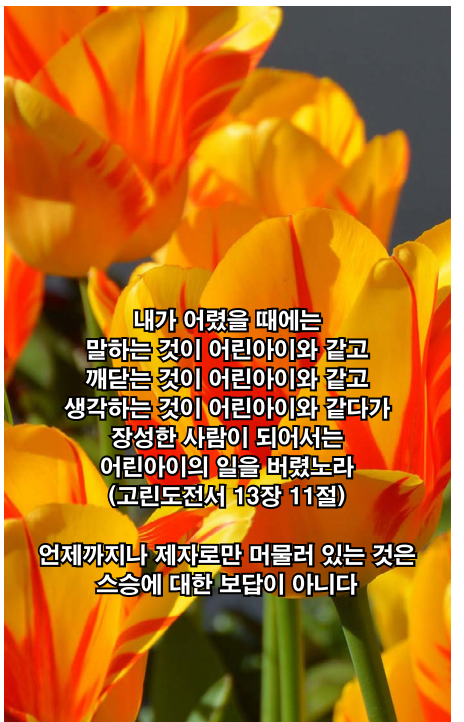
인생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맛있는 음식이 한 가지 맛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 또한 평탄한 날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지나친 단맛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평탄한 날들만 있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도는 우리 뜻대로 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오기 때문에, 앞에 놓인 인생의 잔맛, 매운맛, 또는 쓴맛이 당장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중요한 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조물주인 하나님 손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마태복음 6:34).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타인은 지옥이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타인이 내 삶 속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동안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보다 타인이 나에게 입힌 상처만 기억하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곱씹으며 괴로워한다. 특히 상처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현실은 물론 잠재의식에서도 원한이나 미움, 증오가 쌓여 통쾌한 복수를 꿈꾸기도 한다.

유명한 소설 ‘장발장’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빈곤으로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던 장발장은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다. 옥살이 후 출소한 그는 갈 곳이 없어 목계 된 성당에서 또 다시 물건을 훔쳐 도망가다 장발장을 예의주시하던 자베르 경감에게 잡힌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도둑으로 지목하지 않고 은춧대까지 내어주며 그의 행동을 용서해주었다.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

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지만 장발장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한 번 도둑은 영원히 도둑이야’라고 여기며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자베르 경감이다. 우리는 저 세 사람 중 어떤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용서(容恕, forgiveness)’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4:32)고 한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나는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 감옥에 두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출소한 후에도 억울한 마음과 증오를 품고 살았다면 노벨 평화상은 물론 최초의 흑인대통령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개 용서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용서할 수 없는 타인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주어야 나 역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며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처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어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에베소서 4장 31~3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모든 악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내면의 갈등과 괴로움, 모든 악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타인을 용서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용서’, 어쩌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하나님이 타인을 긍휼히 여긴 그 최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길에 핀 제비꽃처럼 자기를 짓밟는 그 군홧발에 자신의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권정미 성도**

jmgood77@gmail.com